

SK주식회사와 함께 한 자선행사

따뜻한 마음 전한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

연말연시를 맞아 쫄쫄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각종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그 어느 때보다도 훈훈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사)대한제과협회는 SK주식회사가 주최한 자선 행사에 동참해 가족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 행사를 진행해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글 박소희 기자 · 사진 주현진




지난 2004년 12월 15일부터 2005년 1월 8일까지 웨다톤그랜드워커히 호텔 내 제이드가든에서 총 21회에 걸쳐 SK주식회사 주최로 '함께하는 사회 행복한 대한민국' 자선행사가 열려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왔다.

이 행사는 소년소녀가장, 무의탁 노인, 국가유공 특수 공무원을 위한 자선행사로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발마사지, 건강휴식 코너, 포토존, 실버체조 이벤트와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매직존, 게임존, 러브스트레칭, 국가유공자 특수공무원을 위한 꽃바구니,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 등 대상자에 맞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펼쳐졌다.

12월 21일과 22일 2일 동안 국가유공자 특수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열린 '사랑의 케

크 만들기 행사'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관심을 모았다. (사)대한제과협회 기술지도위원 오병호(대한제과제빵학원 원장) 위원이 미리 구워놓은 스펀지에 휘핑크림을 샌드하고 과일을 얹어 마무리하는 과정을 실연한 다음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에 참가한 가족들이 직접 케이크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내가 온갖 정성을 들여 직접 만든 케이크와 마음을 담아 적은 카드를 받은 남편은 마냥 흐뭇한 눈치다.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난생 처음 케이크를 만들어 본 다며 무척이나 즐거워했다.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1 (사)대한제과협회 오병호 기술지도위원이 데코레이션하는 법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2 난생 처음 만들어 본 케이크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짓는 참가자. 3 남편을 위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케이크를 만들고 카드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 남편에게 건넸다. 4 SK주식회사가 주최하고 (사)대한제과협회가 후원한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 자선행사.

